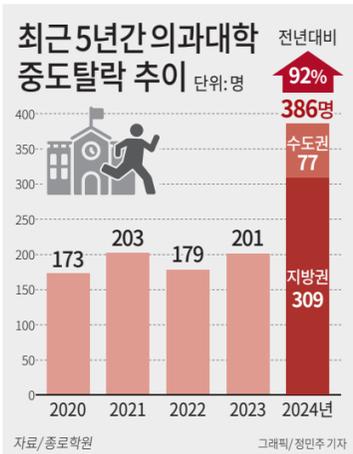


# 작년 의대생 중도탈락 92% 증가 지방 의대 떠나 수도권으로 갔다

의대정원 확대, 동맹휴학 여파에 중도탈락 386명... 의대 간 이동 지방권 309명, 호남권 가장 많아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중도탈락한 학생 수가 전년보다 92%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가 맞물리며 의대 간 이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중도탈락자는 386명으로 전년도(201명)보다 185명 늘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20년 173명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 ▲2023년 201명에서 지난해 386명으로 급증해 2022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체제로 전환된 이후 사실상 최대치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권 의대에서만 309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해 전년도(148명) 대비 108.8% 증가했다. 서울

권(9개교)과 경인권(3개교)에서도 각각 62명, 15명이 탈락하며 서울·경인권 합산 77명으로 전년 대비 45.3%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탈락자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61명) 부울경(60명) 강원(51명) 대구경북권(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권은 전년(13명) 대비 269.2%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제주권 역시 4명에서 12명으로 200%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원광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20명) 연세대 미래캠퍼스(18명) 충남대(18명) 전북대(18명)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대학 중 3곳이 호남권 대학으로 나타났다. 서울대(4명) 성균관대(4명) 연세대(3명) 가톨릭대(3명) 울산대(2명) 등 상위권 대학에서도 탈락자가 확인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고,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복귀 및 재입학이 지연되면서 의대 간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부족응원 아니라 선호 전공이 개설된 대학으로의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또 “올해 의대 모집정원이 일부 축소됐지만 지난해 확대의 여파로 의대 간 이동과 탈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김영권 전 부처장, 호서대에 평생기부 약정

36년 근무 대학에 발전기금 기부 “오랜 헌신과 나눔, 후배들에 귀감”



김영권 호서대 전 대외협력부처장(가운데)이 36년간 재직한 호서대에 발전기금을 평생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호서대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서 정년 퇴임한 김영권 전 대외협력부처장이 호서대에 대학발전기금을 평생 기부하기로 약정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일 호서대에 따르면, 김영권 전 부처장은 매달 일정 금액을 대학에 평생 기부하는 방식으로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김 전 부처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퇴임식에서 “호서대는 제 첫 직장이자 평생 직장이고 저를 성장시켜준 곳”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평생기부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처장은 1989년 입사 이후 36년간 호서대에 몸담으며 대학 홍보와 대외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재직 기간 동안 언론과 지자체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호서대가 중부권 거점 사립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전국 대학 홍보 네트워크를 주도하며 2022년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 25대 회장에 선출돼 200여 대학 홍보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대학 간 정보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국책사업 유치와 발전기금 모금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호서대가 반도체·AI·바이오 헬스·디자인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준모 부총장은 “김영권 전 부처장의 평생기부 약정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오랜 헌신과 퇴임 이후의 나눔이 후배들에게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최교진 청문회, 정책 연속성 vs 도덕성 공방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교육복지·책임교육 강화 ‘높은 평가’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도덕적 논란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자료 검증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으로 연일 검증대에 올랐다. 그는 과거 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옹호하거나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하는 등 정치적 편향 시각이 담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탕탕절’, ‘병신년’ 등 표현은 막말 논란

으로까지 확산됐다.

또한 2006년 발표된 최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는 적절한 인용 없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 발견돼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도덕성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후보자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교육감으로서 교육복지 확대와 책임교육 강화 등 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정책 연속성과 현장 경험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과 SNS 발언, 음주운전 등 도덕적 결함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는) 2014년 7월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해 3선동안 세종교육을 이끌며 작지만 강한 세종교육청을 만들어 왔고,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

각국 제도·수요 등 맞춤형 전략 지원

교육부는 1일 서울 계동 국제한국어교육재단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는 해외

초·중·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국 교육제도와 수요를 분석하고, 국가·권역별 맞춤형 보급 전략을 수립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한국어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해 한국어교육의 자생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999년 미국 현지 학교 한

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확산해왔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46개국 2526개 학교에서 약 2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한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 포천 한탄강서 58일간 가을꽃 축제 개최

오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든페스타

포천 한탄강이 또 한 번 꽃으로 물든다. 2025년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가 오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린다. 평일과 주말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8일간 이어진다. 26만 제곱미터의 넓은 용암대지 위로 장미, 백합, 가우라, 천일홍 등 알록달록 가을꽃이 방문객을 반긴다.

가을꽃 정원 외에도 양버들 가로수길, 지역 작가들이 꾸민 지역공동체 정원, 열대식물이 가득한 이국적인 공간인 열대정원 등 다양한 정원들은 한탄강 가든페스타의 매력을 한층 더한다. 기린과 코끼리 등 동물 모양의 대형 토끼 어리도 설치되어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 최장 410m 한탄강 Y형 출렁다

리도 빼놓을 수 없다. 다리 위에서는 협곡과 기암괴석은 물론 화양목으로 우거진 도롱뇽 포도존과 대규모 무궁화 정원의 축제장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픽킹가든(Picking Garden)’과 야외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주말마다 이어진다. 포천의 농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리버마켓, 공예품 판매와 푸드트럭까지 풍성하게 마련했다.

10월 9일부터 12일, ‘2025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이 개최돼 세계드론라이프쇼(드론 6,000대 동시 비행), 드론 레이싱 및 축구, 드론 컨퍼런스, 세계음식문화축제 등 가든페스타와 연계되어 한탄강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또한, 10월 25일에는 ‘포천 반려동물 관광축제’를 개최해 반려견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3 | 해질 / 19:00

9월 2일 (화) / 음력 : 7월 11일

수도권 날씨

23 ~ 3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23/30, 서울 23/32, 양평 22/31, 수원 22/31, 평택 22/31, 파주 20/31, 가평 21/32, 백령도 22/29, 동두천 21/31, 용인 22/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증시, 알리바바 시 칩 충격에 급락...닛케이 지수 1.24% ↓  
▲아프간, 규모 6.0 지진으로 최소 610명 사망 1300명 부상 /사진 뉴시스

▲“인내 대통령, 반정부 시위 격화에 방종 이어 방 일도 취소”  
▲시진핑, SCO 국가수반이사회 연설 “회원국에 3900억원 무상 원조”

▲우크라이나 “러 상반기 공세 아무 성과 없어...러 후방 타격 계획”  
▲트럼프, 시카고에 추가 자원 투입 시사...일리노이 주지사 “도시 점령”